

일본 윤활유 업계 현황 (II)

- I. 윤활유 업계 실태
- II. 윤활유 업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 III. 윤활유 제조 기술 역사와 연구 개발 활동
- IV. 자동차 산업과 관련 윤활유 동향
- V. 폐유 재생 현황과 공해대책

II. 윤활유 업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윤활유 제조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구조 개선 조치.

윤활유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특색으로서는 과감한 지원과 행정조치를 들 수 있는데

1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윤활유

제조업체들이 기유공동구입 공동 기술연구 사업등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석유 공업 협동 조합 결성을 유도 하였으며 동 조합에 윤활유 정제용 원료유 수입 외자 할당을 정부가 일괄 위임함으로서 1962년에는 초년 대비 28배의 연간 수입액을 나타낸 바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을 배경으로하는 윤활유 수요의 증대와 윤활유 원료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계속하여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통산성에서는 “중소기업 업종별 진흥 임시 조치법”에 따라 윤활유 제조업을 1961년도의 “지정사업”으로 하고 윤활유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그조사결과에 대처하는 개선사항을 책정, 지원하여 주었다.

이와같은 조치는 윤활유 제조업이 무역 자유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설비의 신속한 합리화, 경쟁의 정상화, 품질 및 기술의 개선, 공동사업의 추진, 거대관계의 개선책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취한 것이었다.

동법의 지정에 따라 윤활유 제조업의 개선사항으로 고시된 내용은

○ 경쟁 정상화를 위하여 생산면에서의 협조 관계추진, 윤활유의 질서있는 수입과 판매 경쟁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 설비의 합리화, 작업환경의 개선을 추진 한다.

○ 경영의 합리화에 관하여는 기술자 및 기능자의 양성지도와 노동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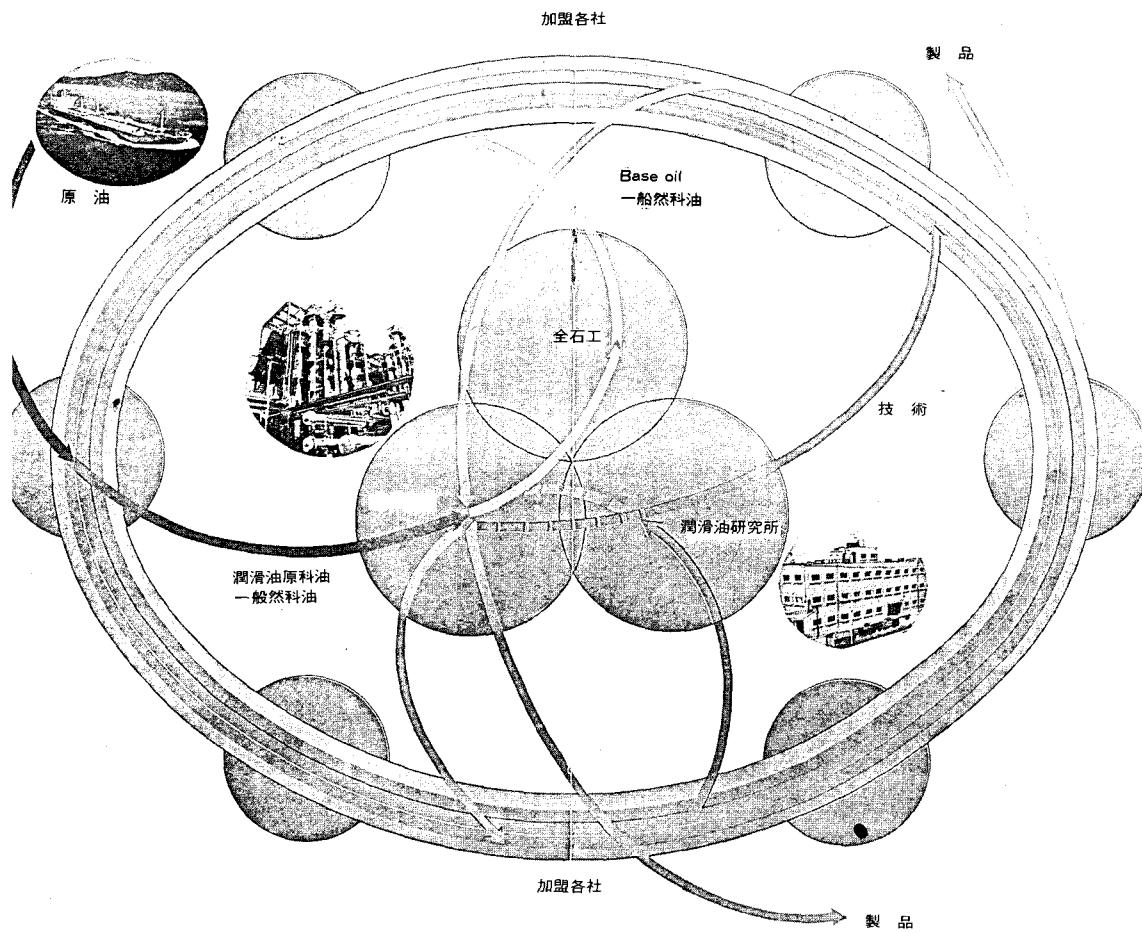
○ 윤활유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윤활유 제조업에서 고급 윤활유 생산을 위한 기술을 정비하고 업계 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결과 전국 석유 공업협동 조합은 1963년 조합원 30개사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일본 고윤(高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4년 이래 고급 윤활 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모든업계의 연료유 안정공급 체제를 확고히 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1)

1 1965년부터 1969년까지는 중소기업 근대화 연도별 실시계획에 따라 고급 윤활 기유 생산의 협업화 확대를 위한 개별기업 설비의 근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어서 또다시 정부는 1970년부터 75년의 6년간에 걸쳐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에 기초를 둔, 구조 개선 계획을 추진 하였는 바, 이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기간중 윤활유 제조업이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에 특정업종(지정업

全國石油協同組合 協業化機構의 事業活動概要



종종,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하여 그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을 긴급히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개선사업이 실현하게 된 것이다.

즉, 윤활유 제조업은 과거 5년간의 근대화 작업으로 상당한 체질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자유화, 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 자본의 자유화, 타국 기술의 도입 자유화, 특혜 관세장벽등 지방 경제체제로서 이행이 진행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석유정세업자에 의하여 대규모의 윤활유 생산설비가 이동되

는 등, 그 놓여져 있는 환경은 악화일로 였으므로 정부는 윤활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계를 망라한 구조개선 계획의 이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 1970년 윤활유 제조업을 “특정 업종”으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석유공업협동조합으로서는 적정 생산규모, 생산비의 인하(일반유 4%, 고급유 7%) 생산성(종업원 1인당 452만원), 집약화 사업의 거래관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체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작성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여 각종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윤활유 제조업자의 판매협업화를 위한 일본 고윤(高潤)의 설립(71년도), 원유처리 그룹화 업무체휴(73년도)의 체결 및 윤활유 중앙기술연구소 설립(72년도) 등이 이루어 졌다.

정부는 또다시 76년부터 78년까지 윤활유 제조업의 구조개선 계획의 연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본 계획의 중간년도인 1973년의 세계 석유 파동으로 말미암은 기업 경영의 악화가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따라 75년으로서 종료되어야 할 구조 개선 사업계획의 목표년도를 7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윤활유 제조업의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을 고시, 구조 개선 계획을 연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 석유파동으로 미달성된 사업 계속추진
- 중소기업 근대화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의 과제가 된 종업원의 복지대책, 소비자의 이익증진대책 및 환경보전 대책 추진
- 관련업종간의 협조를 도모하기위한 구조 개선 사업준비.
- 사단법인 윤활유 협회의 설립(78년 9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윤활유 협회의 등장

윤활유는 그 용도, 요구성능의 다양화와 수요량의 증가 및 생산기술의 향상등을 배경으로하여 현재로는 석유계 윤활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은 윤활유의 제조를 주체로 하는 윤활유 제조업자와 연료유를 주로하고 윤활유를 부업종으로 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바,

19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하여 국제 석유 정세는 일변해 버렸으며 원유 가격의 앙등 및 원유의 선택적 확보난을 초래하여 이 대책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석유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기술의 진보와 보급이 긴급한 과제로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윤활유 분야에서의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윤활유 제조업에 있어서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인 “베이첼라”를 위시한 산유국과의

우호 및 상호 이해를 일층 깊이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원유수입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외교의 강화, 원유 고가시대에서의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고급화등 질적 요청에 대응하는 부단한 기술개발의 추진,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수집기능의 강화, 업계의 고도화 시책 및 환경 보전 대책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윤활유 제조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다.

윤활유 협회는 이와같은 배경으로 78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하여 협회가 행하는 경영합리화 대책에 관한 사업을 윤활하게 추진함으로서 윤활유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78년에 5억¥, 그리고 79년에 5억¥, 그리고 81년에 4억 7,500만¥, 합계 14억 7,500만¥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협회는 윤활유 제조업 근대화기금을 조성함으로서 이 기금운용에서 얻어지는 과실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83년도 정부보조 기금사업은 다음과 같다.

83년도 정부 보조 기금 사업

| 사업명 | 예산액 |
|---|---------|
| 1. 수첨경제 연구 | 500만¥ |
| 2. 수첨 탈납 연구 | 400만¥ |
| 3. 탈납법 개선 | 500만¥ |
| 4. 고급 냉동 기유 개발 | 800만¥ |
| 5. Extract로부터의 신상품 개발 | |
| ○ Extract등의 “포텐”계 윤활유 유분의 오존산화에 의한 신상품 개발 | 350만¥ |
| ○ 유용성 “스트로네트”연구에 의한 첨가제 개발 | 350만¥ |
| ○ 슬라크 와스 연구에 의한 고급윤활유 개발 | 200만¥ |
| 합계 | 3,100만¥ |

동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윤활유의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 윤활유에 대한 내외 사업 조사 및 정보수집, 안정적인 확보대책, 윤활유 정제용 원유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 호 계속)